

■ 서평 ■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 *괘차섭 역*,
『책략가의 여행: 여러 세계를 넘나든 한 16세기
무슬림의 삶』, 푸른역사, 2010.

신 원 민

나탈리 데이비스는 『책략가의 여행』에서 16세기 그라나다에서 태어난 한 무슬림 남성 - 알하산 알와잔, 요안네스 레오, 조반니 레오네, 레오 아프리카누스 혹은 유한나 알아사드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이하 알와잔) - 의 삶을 조망한다. 그의 이력은 다음과 같았는데, 1486-1488년 그라나다에서 출생하여 파스에서 자라났고, 장성한 이후에는 파스의 술탄 무함마드 알부르투갈리의 외교관으로서 봉직하며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였다. 카이로에서 파스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있던 1518년 기독교도 해적에게 납치되어 교황 레오 10세에게 바쳐졌다. 1520년 기독교도로 개종하여 이탈리아에서 사전의 편찬에 참여하거나 기독교도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치고 지리지를 쓰는 등의 일을 하다가 1520년대 후반-153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 튀니스에 거주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알하산 알와잔의 삶은 분명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고, 『책략가의 여행』 서문에 나열된 계열사 연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이들과는 달리 독특한 관점을 통해 알와잔의 삶을 재구성했는데, 그 방식은 그녀의 또 다른 저작인 『마르탱 게르의 귀향』이나 『주변부의 여성들』 등에서 보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 방식이란, 기존의 관점에 따르면

역사 서술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범상한 개인이나 사건 한 가지에 천착하고 주의 깊게 독해하여, 그 미시적인 단계의 관찰을 통해 새로운 역사상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알와잔 역시 그녀가 다루었던 기존의 주인공들과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가 주변부에 위치했던 인물,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개종을 반쯤 강요받은 전 무슬림이었던 기독교도에서 배교를 가장했던 이슬람교도로 위험한 줄타기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기존 저작들에서 다루었던 여성들이 여성들에게 억압적이었던 근대 유럽에서 살아남고 이득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비스는 위험한 기독교 세계에 홀로 떨어진 무슬림이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책략’을 구사해야 했음을 강조한다.

『책략가의 여행』(이하 『책략가』)이라는 제목은 곧 기독교 세계에서는 개종한 이교도로서 무슬림 세계에서는 가짜 배교자로서 의심의 눈초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야 했던 알와잔의 환경을 지칭하고 있다. 데이비스는 알와잔을 양서조에 비유한다. (pp. 166-167) 알와잔이 ‘책략과 날조’를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이 양서조는 필요할 때는 새, 필요할 때는 물고기가 되면서 자신이 치러야 하는 희생을 회피하고 이득만을 얻는다. 알와잔이 남긴 텍스트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그 텍스트들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침묵이다.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떤 것에는 침묵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탐구하는 것을 통해 데이비스는 두 적대적 세계를 위태롭게 오가던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 읽어내고자 한다.

『마르탱 게르의 귀향』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¹⁾에서 데이비스는 자신이 흥미 본위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르탱 게르의 사건을 16세기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책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데이비스는

1) 논쟁에 관해서는 광차섭 편,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0에 실려 있는 핀레이, “마르탱 게르 다시 만들기”와 데이비스, “절름발이에 대하여”를 참조.

『책략가의 여행』을 통해 알와잔을 “16세기 북아프리카 사회, 즉…[다양한 인종]… 들이 거주하고 있고 경계에서는 유럽인들이 발호하고 있던 그 사회” 속에서 읽어내고자 한다. (P.33) 알와잔은 그의 일생을 연구하기에 충분한 양의 자료를 남기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했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보다는 그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남긴 몇 권의 저작 속에만 단편적으로 들어 있고, 마지막 발자취도 1532년 튀니스에서 무슬림으로써 살고 있다는 짙막한 언급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그 얼마 없는 텍스트들과 기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재구성하고, 나아가서 그가 살았던 세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작업은 ‘가능성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데이비스 자신도 몇백 년 전 기독교 세계에 잠시 머물렀던 무슬림의 삶을 정확히 복원해내는 데에는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책략가』에서 데이비스가 택한 역사 서술적 접근방식, 다시 말해서 미시사(Microhistory)로 분류될 수 있는 역사서술의 상당수가, 널리 퍼진 오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 말이 데이비스가 알와잔의 행적을 추적해나가는 데 있어 정확성과 진실성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 그녀가 600여쪽의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결론적으로는 알와잔이 택했을 법한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16세기 기독교 지중해 세계와 이슬람 북아프리카 세계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책략가』의 기본 골조는 알와잔의 인생 역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2장은 이탈리아로 끌려와 개종한 뒤 책을 쓰기 전까지의 알와잔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이후의 장에서 알와잔이 택하게 된 태도의 기반이 어떤 것이었는지 짙막하게 제시된다. 3-6장은 알와잔이 남긴 텍스트에 대해서, 7-9장은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취사선택되었던 ‘전략’에 대해 다룬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알와잔의 텍스트는 『아프리카 우주지리지』(이하 『지리지』)이다. 이 책은 알와잔이 유럽 기독교 세계에 있는 동안 행했던 저술 활동의 총집합이며, 아랍인이 기독교도 독자를 대상으로 아랍 세계에 대해서 설명한 희귀한 예이기도 했다.

자연히 다양한 판본으로 번역되어 널리 퍼졌으며, 그 판본간의 차이점이 『지리지』와 그 저자인 아랍 학자, 대상인 이슬람 세계를 16세기의 유럽 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무언가를 쓰는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표현이다. 『지리지』에서 묘사된 아프리카는 알와잔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으로서 이슬람 지식체계 내에서 사고되어 오던 지역이었고, 이는 유럽인들의 전통적 인식인 ‘세계의 세 번째 부분’으로서 신화적이고 야만적인 영역인 아프리카와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 세계에 대한 언급에서도, 알와잔은 자신의 책이 (그 이슬람 세계를 적대시하는) 기독교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이고 애매모호한 서술 태도를 취하며, 그것은 자신이 개종한 혹은 개종을 가장했던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리지』에서 이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문장은 단 두 가지인데, ‘쿠란에 나오는 예언자 무함마드(무카메토)의 우매함에 따르면, 그리스 왕 알렉산드로스는 예언자이자 왕이었다’와 바로 몇 페이지 뒤에 나오는 ‘이슬람이라는 역병’이 퍼지고 있다는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 이 구절은 데이비스에게 많은 의문점을 선물했다. 『지리지』에서 이슬람에 대한 공격이 드문 것은, 이 책을 쓰는 시점 알와잔이 비교적 무탈하게 기독교 세계에 안착했기 때문인가? 이슬람은 호의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점이 부각되도록 서술되지도 않았으며, 이것은 아마도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경전의 민족(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로 묶이는 관계였기에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꽤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데이비스는 이 범주 하에 분류되지 않는 많은 이신교나 무속신앙에 대한 가혹한 평가들 또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알와잔이 개종자로서 더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면, 아마 이슬람에 대해 이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매한 무함마드’, ‘이슬람이라는 역병’은 어떤 관점에서 출현한 단어인 것인가?

데이비스는 우선 타키야[가장假裝]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기독교의 개종 압력이 가해지던 1504년 마그레브의 한 법학자가 이미 타키야를

사용해도 좋다는 파트와(율법적 결정)를 반포한 바 있었던 것이다. 타키야란, ‘강제적 상황 하에서 믿음과 종교적 관습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예방적 가장의 행동들’이다. 곧 압력 하에 기독교도로 개종하고, 무슬림의 관습을 지키지 않고 대신 기독교도적인 행동을 하게끔 강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슬람의 믿음을 내적으로 간직하고 있다면 괜찮다는 것이었다. (p. 277) 알와잔이 자신의 행동을 타키야로 인식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지리지』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침묵과 은폐도 그러하거나와, 그는 결국 투니스(튀니지)로 돌아가 무슬림으로서 여생을 보낸 정황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와잔이 지중해에서 보낸 시간 모두를 타키야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분석이다. 만일 그렇다면 왜 알와잔은 풀려난 뒤 곧바로 북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한동안 가족을 꾸리며 살았는가? 왜 무슬림으로 돌아간 뒤 투니스에 살면서는, 이탈리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행하지 않았을까?

데이비스가 그려낸 알와잔은, 타키야라는 가면을 쓴 무슬림이라는 단순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아니라 위험하게 두 세계를 오가며 복잡한 내면을 가지게 된 인물이다. 알와잔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데이비스가 가장 특징적으로, 또 자주 인용하는 것은 알와잔이 책 내에서 창안한 양서조의 이미지, 곧 자신의 이득을 따라 자유롭게 입장을 변화시키는 새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무슬림 신앙, 혹은 기독교 신앙의 옹호자라는 “경직된 이분법”을 통해서 알와잔을 제대로 설명해내기란 어렵다. 알와잔은 이슬람 전통 안에서 성장하여 이탈리아어로 책을 쓸 때에도 그 관습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학문적 연결고리를 중요시하는 이슬람적 전통에서 유리되어서, 유럽 세계에서는 기존에 만나지 못했던 보다 폭넓은 학문 세계와 접촉하여 생활할 수도 있었다. 알와잔이 기독교도 해적에게 나포된 뒤 투니스로 돌아가기까지 기독교 세계에서 보낸 약 10여 년간의 기간은, 단순히 숨죽여서 배교를 가장하고서 이슬람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지만 했던 기간은 아니었다.

나포되기 전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한 1장과, 이탈리아를 탈출한 알와잔의 튀니스에서의 생활을 재구성한 9장을 제외하면, 데이비스는 전반적으로 알와잔이 겪었던 16세기 이탈리아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말했던 데로 알와잔이 살았던 16세기 이탈리아는 단순히 이슬람을 배격하는 기독교적인 색채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당시의 기독교 유럽 세계를 보다 혼돈적이고 다채로운 경험이 산재해 있었던 세계로서 보고자 하는 것은 데이비스가 그 이전의 저서들에서부터 계속해서 추구해 오던 테마이다. 알와잔이 살던 시기 이탈리아에는 그와 비슷하게 나포되어 유럽 세계로 왔으며, 중국에는 다시 이슬람 세계로 탈출한 파키가 있었다. 더불어서 알와잔은 그에게 세례를 준 세 명의 대부 추기경을 위시한 많은 이탈리아 고위 관료들과 교류함과 동시에, 유대인 랍비인 엘리아 레비타 등에게서도 이탈리아 적응을 위한 도움을 받았다. 알와잔이 경험한 것으로 데이비스가 그려낸 세계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뒤섞여서, 서로가 서로를 독특한 방식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바로 그러한 세계였다.

그녀는 동시에, 알와잔의 생애를 이런 방식으로 읽어내고자 하는 학문적 계기가 한 비유럽계 프랑스 이민자와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 대한 이방인의, 혹은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의 적응전략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한 편의 목적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p. 32)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데이비스는 『지리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알와잔의 책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수 세기에 걸쳐 그것에 접하게 된 학식 있는 수많은 독자들에게는 폭력으로 분열된 세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소통과 호기심의 가능성을 증언”하는 책이었다고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다. (p. 397) 알와잔이 점유하고 있던 이방인으로서의 불안한 위치가, 오히려 그가 남긴 텍스트 하에서는 소통의 가능성으로써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알와잔 같은 사람들이 기존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은

『책략가의 여행: 여러 세계를 넘나든 한 16세기 무슬림의 삶』

무엇보다도 사료의 부족 때문이었다. 알와잔이 제대로 남긴 것이라고는 『지리지』를 비롯한 몇 편의 텍스트뿐이고, 그의 생애는 거의 남은 것이 없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데이비스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일견 알와잔과는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다른 자료들에서부터 연결고리를 찾아내고자 했다. 이 방법에도 물론 취약점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논쟁 이후로부터 쪽 미시사를 따라오는 역사의 허구성이나 불정확성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책략가』에서 중심이 되는 세계가 알와잔의 출신인 북아프리카라기보다는 그가 10년을 살았던 근대 이탈리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책략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알와잔의 생애나 그의 텍스트를 통한 두 세계간의 소통이라기보다는, 근대 유럽 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양서조적인 아랍 학자를 수용했는지 또는 알와잔이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 유럽 세계에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것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와잔의 생애와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데이비스의 방식이 어떤 시사점을 남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적으로든 인종적으로든, 혹은 어떠한 범주 하에서건 비주류의 위치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기록에 남기기란 어려운 일이며 그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자연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문자자료 속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주체성(Agency)과, 그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었던 복잡하고 혼란한 세계를 쫓는 데이비스의 역사서술방식의 중요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성균관대학교, special630@nate.com